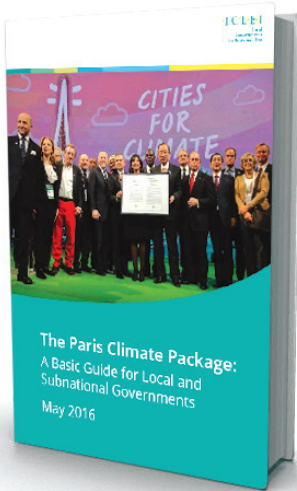


보고서

'파리기후패키지'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가이드

[글] 이창우 초빙선임연구위원 lcwsdi@si.re.kr
서울연구원



**The Paris Climate Package:
A Basic Guide for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2016.5**

ICLEI

2016년 5월 이클레이(ICLEI-Local Government for Sustainability, ICLEI)¹는 '파리기후패키지: 지방정부를 위한 가이드(The Paris Climate Package: A Basic Guide for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라는 소책자를 내놓았다. 이 안내서의 구성을 보면, 1장은 서론, 2장은 제21차 당사국총회로 가는 길, 3가지 주요 과정, 3장은 파리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지방정부, 4장은 2015 파리기후패키지의 주요 결과, 5장은 통합적 전환을 통한 파리기후패키지의 이행, 6장은 전망 순으로 되어 있다.

¹ 이클레이(ICLEI) 이클레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세계 최대의 지방 네트워크로 전 세계 100 개국의 1,500여개가 넘는 기초자치체, 광역자치체, 메가시티 등 다양한 규모의 도시와 지방정부로 구성. 2003년 세계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ICLEI-Local Government for Sustainability)로 공식명칭을 변경 (상세한 정보는 <http://www.icleikorea.org> 참조)

파리기후패키지는 파리협정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결정문을 모두 일컫는 용어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편적이고 야심적이며 포용적인 행동을 펼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파리협정을 통하여 각국 중앙정부는 기후변화의 모든 측면에서 진전을 이룰 것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그와 더불어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밀접히 관련되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COP21(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방정부 대표들은 이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이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밝혔다.

파리기후패키지는 지방정부를 정부주체로 인정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파리기후패키지는 지방정부 대표들이 지구 차원의 달성 목표를 높이고, 행동을 가속화하며, 새 국제기후체제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원, 조직, 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촉진한다. 이러한 파리기후패키지를 길라잡이로 삼아 지방정부 대표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방 차원에서의 회복력과 적응 역량, 기후 영향의 긴급사태에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회복력 있는 저탄소 발전을 향한 세계적 전환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클레이는 지방정부 주체들이 파리기후패키지를 나침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개발하였다. 본 안내서는 다음 4가지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

첫째, 어떠한 과정으로 파리기후패키지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는가?

둘째, 파리 당사국총회에 참여한 지방정부 대표들은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셋째, 지방정부에게 파리기후패키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넷째, 파리기후패키지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보기로 하자.

어떠한 과정으로 파리기후패키지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는가?

파리협정에서 지방정부를 정부주체로 인정한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지방정부 대표들과 관련 네트워크들이 오랫동안 일관되고 확고하게 지방정부의 입장을 주창해온 결과이다. 그러한 과정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지방정부기후로드맵

2007년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시작된 ‘지방정부 기후로드맵(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은 새 국제기후체제에서 지방정부가 정부주체로서 공식회의에 참가하고 강화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 로드맵은 ‘미국시장기후보호 협정(United States Mayors Climate Protection Agreement)’과 ‘유럽시장서약(Covenant of Mayors in Europe)’의 경험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생물다양성협약과 리우+20 협상의 성과로 촉진되었다.

지방정부기후로드맵은 ‘코펜하겐 지방기후공약 세계목록(Copenhagen World Catalogue of Local

Climate Commitments)', '멕시코시티협정(Mexico City Pact)', '더반적응헌장(Durban Adaptation Charter)', '지방정부 온실가스배출 인벤토리를 위한 국제프로토콜(Global Protocol for Community-Scale Greenhouse Gas Emissions Inventories, GPC)', '카본 기후등록부(carbonn® Climate Registry, cCR)'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주요한 결과를 내놓았다.

지방정부 대표들은 기후행동을 향한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후협상장에 집결했다.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앞서 멕시코시티, 더반, 낭트, 바르샤바, 리마, 파리의 시청에서 여러 회의를 거듭하여 중요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과정에 반영되게 하였다. 그러한 결과들은 2008년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에서의 지방정부 세션, 2009년 코펜하겐에서의 지방정부 기후 라운지, 2013년 바르샤바에서의 도시의 날, 2015년 파리에서의 도시와 지역 파빌리온 등 대규모 지방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던 당사국총회의 여러 행사에서 제안되었다. 또한 2010년, 2013년, 2015년의 당사국총회를 거쳐 채택된 지방정부 관련 결정문은 지방정부의 정부주체 인정, 공식회의 참여, 권한 강화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ADP 시스템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 참가국들은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을 발족시켰다. 이 작업반의 설치 목적은 2015년에 채택될 새 국제기후체제를 만들고,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중단된 협의과정을 재개하며, 각국 중앙정부가 2020년까지의 목표수준

을 높이는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클레이는 ADP 설치를 보고 드디어 지방정부가 공식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사실 지방정부와 관련해서 볼 때 ADP는 '당사국과의 대화 가속화(Accelerated Dialogue with Parties)'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클레이는 ADP의 작업 초기인 2012년 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지방정부가 초기부터 적극적인 회의 참가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개도국과 선진국을 포함한 총 21개국 46명의 지방정부 대표가 ADP 회의에 참석해 발표했다.

이후 2013년 바르샤바에서의 제1차 지방정부 워크숍, 2014년 6월의 도시 및 광역정부 포럼, 2014년과 2015년의 도시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과정을 비롯한 ADP의 구체적인 결과들은 지방정부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러한 회의를 통해 나타난 지방행동의 모범사례들이 중앙정부와 공유됨으로써 모든 정부계층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하였다.

2014년 유엔기후정상회의

2014년 유엔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은 큰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파트너십에 기초한 접근방법을 강력히 지지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크리스티나 피게레즈(Christiania Figueres)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촉진시킨 덕분이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유엔 '도시와기후변화특사(Special Envoy for cities and climate change)'로 임명된 것도, 지방정부 세계 네트워크들 사이에 건설적인 마인드에 기여했다. 그 예로,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 광역지방정부협약(Compact of States and Regions) 등의 새로운 지구

표1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의 지방정부 활동 개요

협상장 외부의 주요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2월 4일 파리 시청에서 지방정부 대표를 위한 기후 정상회의 개최: 600명 이상의 대표, 참석자 1000명, 선언문 발표 • 2015년 12월 1~2일 도시와 지역 파빌리온-TAP2015 개최: 120개 이벤트, 2,000명 참석, 200명 이상의 지방정부 대표 참석, 120개 이상의 전환행동 프로그램(Transformative Actions Program, TAP) 프로젝트 전시
협상장에서의 지방정부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일일 브리핑, 협상에서의 주요 입장에 대한 의견 수렴, 개폐회식과 고위급 총회에서 발표와 ADP를 통한 입장 진술 • 공식적인 UNFCCC 프로그램과 국가 및 국제기구의 파빌리온에서 25개 이상의 이벤트 개최 • '변화를 위한 방법과 추진력을 선도하는 광역정부: 도시 시민'을 비롯한 UNFCCC 주도 이벤트
리마-파리 행동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년 도시 및 지역 비전, 세계 빌딩 및 건축 연합, E-모빌리티 선언을 비롯한 12개 주제별 세션의 결과물 • 12월 5일 고위급 행동의 날에 지방정부 대표 참석
파리에서의 기타 전략적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에 의한 메가시티 물 및 기후 연맹 발족 • 유엔 해비타트에 의한 도시 기후행동계획을 위한 기본원칙 논의
특별 이벤트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차 당사국총회 참석 장관들에게 ICLEI 선언문 전달, C40 포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이사회, 협약-서약 협력, C40 도시상, 세계 기금에 기여한 도시와 지역: 녹색기후기금에 파리시와 브뤼셀 수도권 출연, 지구환경기금(GEF)과 최빈국 기금에 퀘벡 출연, 파리 행동 약속

자료 ICLEI, 2016, p6

적 구상이 나오면서 지방 기후행동의 집단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리마에서 열렸던 당사국총회에서는 비국가 부문 기후행동 포털(Non-State Actor Zone for Climate Action<NAZCA> Platform)²이 발족되면서 중앙정부가 아닌 이해관계자들의 약속과 행동의 다양성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리마-파리 행동의제(Lima-Paris Action Agenda, LPAA)³에서 새 국제기후체제를 지원하는 장·단기 행동에 모든 행위주체

를 참여시키는 포용적인 과정을 확립했다. LPAA는 중앙정부의 장기적인 행동을 승인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한 새 국제기후체제의 핵심 요소이다.

파리 당사국총회에 참여한 지방정부 대표들은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지방정부를 정부주체로 인정하고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참여를 허용했다. 제21차 당사국총회는 지방정부 대표들의 참여 수준이 높아지는 전환점이 되었다.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개최된 '도시 및 지역 파빌리온-TAP 2015'는 지방기후행동의 주요 행사였다. 이 행사는 파리시와 2015년 유럽 환경수도 브리스틀

² 나즈카(NAZCA): 기업, 도시, 지방정부, 투자자 등 당사국 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기후보호 실천활동에 대한 자신들의 공약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자리로 2014년 제20차 당사국 총회 의장국 폐루가 새 기후체제 합의에 추진력을 주기 위한 목표로 출범시킨 플랫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5 참고)

³ 리마-파리 의제(LPAA): 새 기후체제 합의를 위한 비국가주체들의 공약을 만들기 위해 20차 기후총회 의장도시 리마와 2차 의장도시 파리가 주축이 되어 유엔사무총장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공동으로 출범시켰으며, 2016년은 물론 그 이후의 기후행동 강화를 목표로 함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5 참고)

시가 공동 주최하고 이클레이가 주관하여 2주간 개최되었는데, 지방의 기후행동(Climate Action)을 중심 무대에 올려놓았다. 그 주요 내용은 도시와 기업의 협력, 도시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조, 전 세계에 걸친 다양한 차원의 효과적인 기후행동을 비롯한 파트너십이었다. 특히 120여 개 지방정부가 전환행동 프로그램(TAP)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기후 프로젝트를 제시한 파빌리온 행사는 지방정부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때 선보인 프로젝트들은 이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파리시청에서 열린 지방정부 대표 기후정상회의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각국의 시장 및 지방대표와 주지사가 모인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였다. 이 역사적 이벤트는 지방정부가 더욱 야심적인 목표치를 정하는데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행동의 집단적 힘을 선보임으로써 지방정부 대표의 목소리가 기후 협상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이클레이를 협력창구로 하는 지방정부그룹(Local Govern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LGMA)은 제21차 당사국총회 내내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가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썼다. 즉 LGMA는 협상 현황을 지방정부 대표들에게 정기적으로 브리핑해주고,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중앙정부 대표단에게 입장문서를 전달할 수 있게 도왔다. 이로써 지방정부 대표들은 파리기후패키지의 성공적인 이행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부 대표단에게 상기시켜주는 통일된 메시지를 보냈다.

제21차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동안 리마-파리 행동의제(LPAA)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조직했다. 그리고 LPAA 도시와 광역정부의 날에 도시와 지역

대표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후적응 강화, 회복력 증강, 재정지원 제고, 모든 계층의 정부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5개년 비전과 즉각적 행동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선보였다.

지방정부에게 파리기후패키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파리협정과 제21차 당사국총회 이행 결정문을 포함하는 파리기후패키지는 명시적으로 기후행동에서의 지방정부의 위상을 인정하고 참여를 공식화하고 있다. 2016년 4월 전 세계 177개국 정상이 서명한 파리협정은, 10월 5일 현재 미국, 중국, EU 등이 비준하여, 55개국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55% 이상이라는 발효 조건이 충족되면서 2016년 11월 4일자로 발효되었다. 협정 전문에 따르면 역량 배양, 적응, 손실과 피해 관련 행동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약속하면서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의 더욱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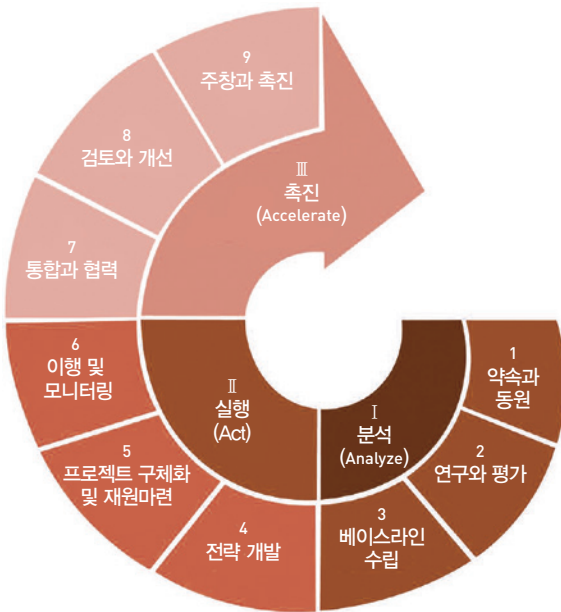
파리기후패키지의 일부인 제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은 행동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확립하고 있다. 이 결정문 곳곳에는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세부적이고 다양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에서 도시와 지역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데, 각국 중앙정부의 약 50%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행동을 장려하고 있다.

파리기후패키지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지방차원의 정책결정

첫 번째 단계는 중앙정부가 국가결정기여를 통해 약속한 것처럼 지방정부가 감축과 적응 공약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이다. 즉 지방정부 대표들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점검 가능한 공약을 함으로써 파리협정 기여도를 보여주고, 다른 행동주체들에게 달성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효과적인 지방결정 기여(Loc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림1 녹색기후도시(GreenClimateCities, GCC) 방법론의 순환적 접근방식



자료 ICLEI, 2016, p10

지방차원의 역량 배양

지방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지방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녹색기후도시 (GreenClimateCities, GCC)가 있다. GCC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방법론과 관련 수단, 안내서,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지식과 정보교환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GCC 방법론은 전체 GCC 프로그램의 핵심으로서, 지방정부는 이 방법론에 따라 저탄소 또는 회복력 있는 개발 경로를 만들 수 있다. GCC 방법론은 3단계 9개 과정의 순환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분석(약속과 동원, 연구와 평가, 베이스라인 수립), 2단계는 행동(전략 개발, 프로젝트 구체화 및 자원마련, 이행 및 모니터링), 3단계는 가속화(통합과 협력, 검토와 개선, 주창과 촉진)로 나뉜다. <그림1 참조>

GCC 방법론은 이클레이의 저탄소 도시 어젠다와 회복력 있는 도시 어젠다 간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사실 이 두 가지 어젠다는 지방정부 대표들이 통합적인 기후행동을 추진하면서 지방기후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클레이와 협력하는 주요 접점이기도 하다.

도시와 기업의 파트너십

지방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보완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이행 파트너들을 찾아야 한다. 말하자면 전략 목표를 지원하는 기술적 모색과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념 단계에서부터 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 부문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클레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관계성을 인정하면서 몇 가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클

레이가 개발한 첫 번째 예가 CiBiX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클레이는 일종의 교량 역할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기업간 접촉과 대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민간회사, 솔루션 제공업체, 지방정부를 대도시솔루션(Metropolitan Solutions) 포럼에 모이게 했다. 대도시솔루션은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며, 여기서 이클레이는 스마트시티 2.0 회의를 주관하고 있기도 하다.

기후 자원

도시와 기업의 파트너십이 기후행동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촉진한다면, 기후 자원은 신속하고 성공적인 이행에 필수적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공약 이행을 지원하는 데 매년 최소 1,000억 달러가 지출되는데, 지방정부는 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클레이는 지방정부가 자원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새로운 직접적 재정지원 메커니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서 이클레이가 시작한 새 프로그램이 전환행동 프로그램(Transformativ Actions Program, TAP)이다.

TAP에 참여하는 각 도시는 TAP 플랫폼을 통해 그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다. TAP은 정부대표단, 국제 기부단체, 금융기관들이 모이는 연례 당사국총회에서뿐 아니라 재정지원기관과 지방 기후 프로젝트를 위한 온라인상 중개 역할을 한다.

성과 평가와 보고

파리협정은 각국이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 보고, 검증(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MRV) 장치는 지방정부에게도 중요하

다. 새 국제기후체제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부합되는 정기적이고 표준화된 보고를 통하여, 도시는 그들이 기울인 노력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지구기후기금에 직접 접근할 수도 있다.

이클레이는 지방정부의 접근 가능한 보고 플랫폼으로서 카본 기후등록부를 개발했다. 카본 기후등록부란 지방정부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이고 공개적이며 정기적으로 감축 및 적응 공약, 감축 및 적응 활동, 배출 인벤토리를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온라인 보고 플랫폼이다. 또한 시장협약을 비롯한 15개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보고 플랫폼이기도 하다.

지방 행동의 요약

앞에서 설명한 5단계는 지방정부가 파리 기후 패키지를 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여기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추가적인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 아래의 표는 2007년 발리에서 2015년 파리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가 이룬 성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2 참조>

'서울의 약속'을 위한 노력

2015년 12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대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파리에 모였다. 사실 지방정부가 기후공약을 추진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상당히 많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약 추진과정에서 각 지방정부의 기여분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중과의 약속과 투명한 성과 보고를 통하여 도시 정부는 파리협정에 제시된 여러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2 2007년 발리에서 2015년 파리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가 이룬 성과


인정	1	지방정부를 정부주체로 인정 - 2010년 칸쿤, 1 Dec/CP16 제7조
	2	2020이전 목표 제고에서 도시와 광역정부의 역할 인정 - 2013년 바르샤바 1 Dec/CP19 제5b조
	3	역량 배양, 적응, 손실과 피해에서 지방, 광역, 지역사회 차원뿐 아니라 전 계층 정부 참여 인정 - 파리협정 전문 15, 7.2, 11.2, 8.4.h조 +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에 대한 COP21 결정문
참여	4	2010년 칸쿤 COP16과 2013년 바르샤바 COP17에서의 장관-시장 대화, 2014년 리마 COP21과 2015년 파리 COP21에서의 고위급 행동의 날
	5	도시환경과 도시와 광역포럼에 대한 ADP 워크스트림2 기술검사과정
	6	시장협약, 광역지방정부협약, 시장서약, 언더2MoU 등
	7	지방정부그룹(LGMA) 증가와 그룹의 정치지도자를 위한 특별 UNFCCC 회장
	8	5개년 비전을 비롯한 리마-파리 행동의제(LPAA)와 최초의 데이터 파트너로서 카본 기후등록부를 포함하는 NAZCA 플랫폼
	9	UNFCCC에서의 도시의 친구들, 부속서 1 및 비부속서 1 당사국의 정부대표단에 점점 더 많은 지방 및 광역정부 대표 참여
	10	파리 역량배양위원회 작업계획 - 1 Dec/CP21의 73 d/g 조
	11	2015년에 제출된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의 50%는 지방정부 차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12	글로벌 기금에 기여하는 도시와 지역: 파리와 브뤼셀 수도권이 GCF에 출연, 퀘벡이 GEF-LDCF 등에 출연
	13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GEF 통합 행동 프로그램, 도시기후재원 리더십 연합(CCFLA), 기후-KIC LoCal 프로그램, 유엔 광역지방정부 기후행동 허브와 같은 새로운 자원
권한 강화	14	전환행동 프로그램(TAP) 발족
	15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센다이-재해, 아디스아바바 자원, 목표 11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료 ICLEI, 2016, p6

그림2 2015년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2015.4.8.~12, 서울)



자료 ICLEI, 2016, p. 10

이를 위해 이클레이는 2015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세계 도시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비전과 시민, 기업, 서울시의 실천의지를 담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을 전 세계 인류 앞에 선포하였다. 서울시는 이 '서울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나 가야 한다. '서울의 약속'의 이행 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시장협약 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포럼을 개최하는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5,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총회 및 향후 10년 대비 이클레이 2015 기후변화 대응활동 동향 정책브리프 4호
- ICLEI, 2016, The Paris Climate Package: A Basic Guide for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